

1930년대 후반 아동극의 좌표, 지배와 균열

— 김진수의 <종달새>를 중심으로

손증상*

<차례>

1. 서론
2. 아동의 일상을 지배하는 수신서, 학교 규율과 황국신민화의 강화
3. 극중극의 꿈을 통한 지배담론의 균열 시도
4. 식민권력에 대한 협력과 저항의 경계에서 - 결론을 곁하여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1930년대 후반 아동극의 변화와 그 의미를 김진수의 <종달새>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935년에 『어린이』, 『신소년』, 『별나라』 등이 폐간되고 소년회가 해산되면서 소년운동은 침체기를 맞게 된다.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3차 조선교육령의 실시 등으로 식민지 조선의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였고, 1938년 1월부터는 황국신민의 서사를 게재하지 않는 신문과 잡지는 불온문서 취급을 당하였다. 아동문학은 식민지 현실을 외면하기 시작하였으며 찬란한 황국신민의 덕목을 유포하여 소년들의 정신을 교화하기 시작하였다. 김진수의 <종달새>는 바로 이런 시기에 발표되었다. <종달새>는 당대 조선총독부 수신교과서의 덕목인 생명존중과 우애를 통해 '착한 어린이'를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 규율을 통해 학교 밖에서의 아동의 일상까지 통제하고자 했다. 게다가 마지막 장면에서는 일본의 민요작가 노구치 우조(野口雨情)의 동요 「푸른 눈의 인형」(靑い眼の人形)을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황국신민으로서의 아동을 보여 주었다. 특히 이 작품은 친일 아동단체인 동심원에 의해 1940년 3월 31일에 황기 2600년 봉축 기념행사에서 김상덕의 아동극 <수업료>와 함께 공연되었다는 점에서, 일제가 요구하는 지배담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진수는 식민지배 담론을 따르면서도 극중극을 통해 저항을 시도하였다. <종달새>의 2경은 아이의 꿈 속 세계로, 세상에 간혀 자유를 갈망하는 종달새 가족의 이야기와 윤복진의 동요 「종달새」를 통해 관객의 슬픔의 정서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당대 조선의 상황을 연상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하게 한다. 이로 인해 3경에서 극의 표면적인 주제는 반감되지만, 2경의 내용이 3경에서 새를 새장에서 풀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극 구조에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김진수의 <종달새>는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아동을 총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던 시기에 일제의 식민 담론을 수행하면서도 그 틈새를 통한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 김진수, 노구치 우조, 동요, 아동극, 윤복진, <종달새>, 황국신민화

1. 서론

일제강점기 아동문학은 1935년을 전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1923년에 전근대적 아동관으로부터 아동의 해방을 주창한 천도교소년회가 『어린이』를 발행하였다. 이후 아동잡지 발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어린이』(1923.3~1935.3), 『신소년』(1923.10~1934.5), 『별나라』(1926.6~1935.1.2) 등이 1930년대 중반까지 발행되면서 아동극을 주도하였다. 이 아동잡지들은 각각 천도교소년회와 개벽사, 조선어학회와 신소년사, 카프와 별나라사리는 강한 목적의식을 지닌 발행 주체와 소년운동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무렵부터 소년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강경해지면서 소년회는 해산되었고 아동잡지들이 폐간되었다. 소년회의 해산과 아동잡지의 폐간되었다. 이와 더불어 아동극도 주춤하게 되었다.¹⁾

일제는 1935년부터 아동보호에 관련된 운동 일체를 ‘유유아애호주간(乳流兒愛護週間)’으로 통합하였고, 조선사회사업협회²⁾가 조선총독부의 후원을 받아 이 행사를 주최하면서³⁾ 소년회의 관변 단체화가 본격적으로 진

1) 손증상, 「1920-30년대 아동극 연구 : 『어린이』, 『신소년』, 『별나라』를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참조.

2) 조선사회사업연구회에서 명칭을 변경한 조선사회사업협회(『중외일보』, 1929.4.14)는 조선아동애호연맹으로부터 어린이날과 아동애호주간을 이양 받아 주관한 대표적인 관변단체이다.

3) 『매일신보』, 1935.5.3.

행되었다. 1936년 12월에는 조선아동애호연맹 창립 준비위원인 김상덕, 한상직, 김운강 등 10여 명과 진장섭, 김태오, 이정호, 정홍교, 고장환 등이 소년운동을 이끌었던 조선소년총연맹, 경기도소년연맹, 경성소년연맹을 해체하였다.⁴⁾ 일제는 기존의 소년회를 해산시켰을 뿐 아니라 새로운 관변 단체들을 결성하여 소년운동을 교화사업으로 변질시켜 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일제의 식민담론을 실천하는 교화사업이 중요시 되었으며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문예 활동이 가능해졌다. 소년운동이 부재하는 가운데 아동문학은 식민지 현실을 외면하고 순수를 중시하거나 충량한 황국신민의 덕목을 유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창작되었다.⁵⁾

동화와 소년소설, 동시와 동요 등의 장르가 『소년』(1937.4.1940.12)을 중심으로 여전히 활발하게 발표되었던 것과 달리 운동성이 강한 아동극의 창작과 공연은 축소되었다. 아동극 발표 지면은 잡지에서 『동아일보』로 이동하였고 아동극 공연은 점차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가운데 김진수의 <종달새>는 1938년 1월에 창립된 ‘경성동요극연구회’의 제1회 발표회에서 공연되었고,⁶⁾ 1938년 6월 『동아일보』에 연재되었으며,⁷⁾ 1940년 황기 2600년 봉축 기념행사에서는 대표적인 친일소년단체 동심원(童心園)에 의해 공연되었다⁸⁾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소년회가 해산되고 『어린이』, 『신소년』, 『별나라』, 『동화』 등이 폐간될 정도로 검열이 강화된 상황에서 발표된 <종달새>는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저항하려는 문제의식을 구체화한 작품이기 때문

4) 『매일신보』, 1936.12.27.

5) 원종찬은 근대적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소년운동은 아동문학을 추동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으며 소년운동의 지원을 받지 못한 아동문학은 “이념성과 운동성을 중시하는 흐름은 약해지고 문학성과 대중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한층 강해졌다”(원종찬, 「순수와 동심, 타락한 천사의 기원」, 『창비어린이』 14집, 창비어린이, 2016, 167면)라고 했다.

6) 『동아일보』, 1938.1.28.

7) 『동아일보』, 1938.6.22.~29.

8) 『동아일보』, 1940.3.21.

이다.

특히 김진수의 <종달새>는 아동극 공연이 많지 않았던 1930년대 말에 자주 공연되고 호응을 얻은 작품이었다. 김진수의 회고에 따르면 <종달새>는 “당시 평양방송국의 아동 시간 프로를 편성하던 친구가 프로를 채우기 위해”⁹⁾ 아동극을 부탁하면서 쓰게 된 방송동극¹⁰⁾이다. 1936년 4월 10일에 방송을 개시한 평양방송국¹¹⁾에서 <종달새>가 언제 방송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지만, 1938년 경성동요극연구회의 공연과 라디오 방송, 1940년 봉축 기념행사 등에서 공연되었다는 사실은 이 작품이 일제의 시선을 충족시키면서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음을 방증한다.

일제는 황기(皇紀) 2600년을 맞아 1940년 2월 12일에 조선신궁에서 기원절제(紀元節祭)를 시행하고 방방곡곡에서 다양한 봉축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일제는 우수한 사회교화 단체와 시설에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전조선의 신사에서도 황운(皇運)의 유구를 기원하는 제의를 거행하였으며, 군관, 학교, 민간단체 등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기원절 봉축식과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였다.¹²⁾ 경성 동심원의 아동극 <종달새> 공연 역시 동일한 지점에 놓여 있다. 친일 아동문학가 김상덕 주재로 “어린이를 좀 더 어린이답게 지도하기 위하여 탄생”¹³⁾하였던 동심원은 전 조선인을 대상으로 식민정책에 대한 강연,¹⁴⁾ 동화동요대회,¹⁵⁾ 아동극공연 등을 실행하였는데,

9) 김진수, 「후기」, 『김진수회곡선집』, 성문각, 1959.

10) 1930년대 중반 소년회 활동이 금지된 이후에 소년방송단체들이 소년문예운동의 명맥을 이어갔다. 이 무렵에는 녹성동요회, 조선아동예술연구협회, 두루미회, 경성방송동극연구회, 피꼬리회, 신흥동인회, 경성동우회, 경성어린이방송회, 경성방송아동연구회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남기훈, 「일평」, 『조선중앙일보』, 1936.3.10.

11) 『동아일보』, 1936.4.12.

12) 『동아일보』, 1940.2.12.

13) 『동아일보』, 1939.10.8.

14) 『매일신보』, 1937.4.24. 1937년 5월 8일에는 아동애호주간을 기념하여 동심원이 개최한 강연회에서는 박흥민이 「아동과 예술」, 의학박사 이선근이 「아동과 보건」, 연희전문학교 교수 정인섭이 「아동과 사회」를 강연하기도 하였다.

15) 『동아일보』, 1940.6.14.

봉축기념 행사에는 『경일소학생신문』이 주최한 현상공모의 조선총독상을 수상한 우수영의 「수업료」¹⁶⁾를 각색한 아동극 <수업료>가 함께 공연되었다.¹⁷⁾ 다시 말해 <종달새>는 관객을 극장으로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제의 시선에 부합하는 식민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데 1938년의 극작가 김진수의 활동을 감안하면, <종달새>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진수는 동경학생예술좌 창립 멤버¹⁸⁾로 극예술연구회 현상모집에 <길>(『조광』, 1937.4.7)이 당선되면서 극작가로 활동하였다. <길>은 “대사와 장면이 지리”하여 “따분한 것이 힘”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새롭고 구성이 치밀”하면서,¹⁹⁾ 그 이면에는 식민지 조선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치려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작품이다. 그의 다른 작품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유민영은 김진수를 식민지 시대, 해방직 후의 사회상, 동족상잔 등을 우회적 방법으로 다룬 범용한 극작가라고 평가하였고²⁰⁾, 다른 연구자들은 195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김진수의 사회비판의식과 계몽적 의도를 강조하였다.²¹⁾ 즉 1938년의 김진수는 식민지배담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수행한 작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식민지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응시하였던 작가이다. 김진수가 아동극²²⁾을 많이 발표

16) 우수영의 「수업료」는 현상공모에 당선되자마자 연극과 영화로 각색되어 빠른 속도로 유포되었다. 이는 「수업료」가 “일본어 작품의 한 모범이 된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모범을 널리 보이겠다는 일제 당국의 의도”(이덕기, 「영화 <수업료>와 조선영화의 좌표」, 『한국극예술연구』 29집, 한국극예술학회, 2009, 129면)에서 비롯되었다. 김상덕이 각색한 아동극 <수업료>에 대한 연구는 차후 진행할 예정이다.

17) 『동아일보』, 1940.3.24.

18) 『동아일보』, 1934.7.18.

19) 『동아일보』, 1937.12.28.

20)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흥성사, 1982, 415면.

21) 오영미, 「김진수 희곡 연구-1950년대 발표작을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6집, 한국연극학회, 1994; 심상교, 「김진수 희곡연구 : 50년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35집, 안암어문학회, 1996.

22) 〈산타클로쓰〉(『동아일보』, 1938.12.22-24), 〈바람을 잡아먹는 아이들〉(1952), 〈뒷골목의 예수〉(1958) 등이 있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자신의 작품 중에서도 아동극 “<바람을 잡아먹은 아이들>을 가장 사랑”²³⁾한다고 말할 정도로 아동극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종달새> 역시 김진수가 식민지 아동과 직결된 문제를 보여 주고자 한 작품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종달새>가 식민담론을 수행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식민권력에 대한 균열을 일으키고자 한 저항은 어떠한 방식으로 시도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관심사이다. 1930년대 후반 아동극은 식민지 조선 아동의 황국신민화 만들기 정책이 강화되어 가던 시점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했다. 김진수를 비롯한 함세덕, 박흥민, 홍은표 등 기존의 아동극 작가들이 아닌 새로운 작가들이 아동극을 창작하였고 단막극이었던 아동극이 길어졌는데,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 후반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특성은 일제가 제시한 황국신민화 정책을 따르면서도 그 틀에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창작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종달새>가 지니는 대표성과 차별점에 주목하여 김진수가 모색한 소극적 저항성, 더 나아가 1930년대 후반 아동극의 좌표를 읽어내고자 한다. 일본제국주의의 총동원체제가 강화되고 식민지 조선인의 일상도 통제되었던 시기에 창작된 <종달새>가 지닌 정치적 맥락을 짚어내고 지배에 대한 저항을 시도했던 창작 전략을 확인하는 것은 1930년대 후반 아동극 지형도를 탐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2. 아동의 일상을 지배하는 수신서, 학교 규율과 황국신민화의 강화

<종달새>는 종달새를 잡아 새장에 가둔 광수와 이를 불쌍히 여겨 풀어

23) 김진수, 「후기」, 『김진수희곡선집』, 성문각, 1959.

준 복수의 이야기로 광수복수 남매의 다툼과 화해를 다루고 있다. 시간적 배경은 여름날 오후로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 작품이 발표된 시점과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동시대라 할 수 있다. 즉, 김진수는 <길>에서 당대 사회현실을 무대화한 것처럼 아동극에서도 당대 아동의 일상을 그리고 있다. 1930년대 초중반의 아동극에서 아동은 지주에게 소작료를 내고 나서 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고, 공장과 논에서 일하거나 일하는 언니 오빠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1930년대 초중반의 아동극 작가들이 아동의 일상을 통해 가난과 식민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면, 김진수가 <종달새>에서 그리고 있는 아동의 삶은 식민지 조선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보이는 남매의 소소한 일상이라 할 수 있다. 남매가 사는 집은 밭이 있는 마당과 책가방, 책, 장난감이 흩어져 있는 아이의 방, 처마 끝의 새장 등 평화로워 보이는 집이다. 복수는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어머니는 부채질을 하면서 복수의 친구를 맞이한다.

어머니 맴이를 잡으러 갔어? 이리케 더운데…… 집에서 공부나 허질 안쿠 사냥들은 뭇 하려구 다니는지……

옥순 (종달새 조롱을 쳐다보면서) 아이구 저 종달새 봐…… 별서 저러케 컷어요? 참 이뿌기도 해라. 저 종달새 광수가 우리 읍바하고 잡어온거지요?

어머니 너이 은이두 새 사냥을 다니느냐? 뭇 하려구 날짐생을 잡아다가 저러케 가뒀는지

옥순 노래를 들지요 저 종달새 소리 듣기 조치 안으세요

어머니 노래를 드르려면 저러케 조롱에다 가두어 노코 들어야 현다든?

(…중략…)

어머니 가겠어? 애 옥순아 너 우리 광수가 간 곳을 안다지? 나허구 가치 가서 좀 가르켜 다우. 응 옥순이 참 착허지.²⁴⁾

더운 여름에 광수와 동네아이들은 매미를 잡으려고 산으로 들로 다닌다. 어른의 시선에서 본다면 매미 잡이는 일종의 사냥이며 광수가 종달새를 잡아 새장에 가두는 것도 사냥이다.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기 위해 새를 잡아 새장에 가둔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사냥이 아닌, 인간의 미적 정조(情調)를 만족하기 위한 탐욕일 뿐이다. 그러나 매미 잡이와 동물사냥은 아이들에게는 그저 놀이이며 유희 본능이고, 일과 놀이의 구분이 없는 아이들의 활동에서 놀이는 곧 일이며 아이들의 일상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매미 잡이나 동물 사냥이 놀이에 불과하지만, 꿈속에서 종달새들의 이야기를 들은 복수는 종달새의 자유의 문제를 끊임없이 부각시킨다. 꿈에서 깨자마자 복수는 “좁은 조롱 안에서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나는 종달새의 얘기를 듣고 눈물이 다 나왔어요 저 종달새들이 우리 오빠를 얼마나 밉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라고 하면서, “종달새를 노하주지 안흐면 우리 오빠는 담박에 벌을 받”²⁵⁾는다며, 광수 몰래 새장을 열어 종달새를 놔주었다.

반면, 복수의 오빠 광수는 좁은 새장 안에 갇혀 있는 새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안타까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인물이다. 놀이에서 돌아온 광수는 이번에는 까치새끼를 잡아 “어머니 날보고 꾸지람 마소 웃고롬 뎨 것이 그리 죄되오 이래봐도 골목에선 힘이 세다고 골목대장 골목대장 불러줍니다”²⁶⁾라며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한다.

광수 이거 까치새끼야새조롱 잇는데로 간다. 종달새가 없어진 것을 보고종달새 어쨌냐? 어머니 내 종달새 어더켓어요 (까치새끼를 새장 안에 집어 넣는다)

어머니 ……

24) 김진수, <종달새>, 『동아일보』, 1938.6.22.

25) 김진수, <종달새>, 『동아일보』, 1938.6.28.

26) 풍요 <골목대장>(신고송 요, 흥난파 곡)은 『조선동요백곡집』(흥난판 작곡, 흥영후 편사, 삼문사서점, 1933, 45면)에 게재되었다.

광수 내 종달새 어쩐어? 누가 내 새장 문을 열어놨요?
 어머니 ……
 광수 (화가 바짝나서)내 종달새 어쩐어요? 어머니
 어머니 ……
 광수 왜 가만 있어요? 빨리 말하세요?²⁷⁾

가치를 새장 안에 넣으려다 종달새가 없어진 것을 알고 화가 난 광수는 복수가 새를 풀어줬다는 사실을 알고는 복수를 때린다. 새가 어디 갔는지 어머니에게 묻는 광수는 상당히 무례한 모습으로 전후사정을 듣지도 않고 복수를 때렸는데, 이러한 모습은 복수와 옥순이 등 ‘착한’ 아이들과 대비되는 광수의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후 동물을 사랑하고 동생과 다투지 말라는 아버지의 훈계로 들은 화해를 하고, 선물로 받은 하모니카를 불면서 노래를 부른다.

아버지가 강조하는 생명존중과 우애는 인격함양을 위한 보편적인 윤리이고 올바른 가치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일체의 교육 목적을 반영하고 내선일체의 기치 아래 조선인의 일본인화와 일본 천황을 경배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황국신민화를 실천하는 수신교과서²⁸⁾에서 강조하는 덕목이었다. 이는 아버지가 광수를 훈계하는 방식에서 학교와 선생님의 권위의 문제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즉 아버지에게 있어 도덕적 가치관의 근거는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 학교 규율에 있으며,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근거하여 광수를 훈계한다.

아버지 …애 광수야 네가 복수를 때렸지? 애 아버지의 말씀을 자
 서이 들어봐-. 너 학교에서 선생님이 동물을 사랑하라고
 그러시드냐? 미워하라고 그러시드냐?

27) 김진수, <종달새>, 『동아일보』, 1938.6.28.

28) 김경자 외, 『한국 근대 초등교육의 좌절』, 교육과학사, 2005, 18면.

광수
복수 아버지 우리 선생님은 동물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러셨지요.
아버지 애 광수 너는 왜 대답을 못하니? 너의 선생님은 동물을
미워하라고 그러시든?
광수
아버지 너의 선생님도 동물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지?
광수
이때에 새장 안에 너허두엇든 까치새끼 각각씩 울어 댄다
아버지 (까치 새끼의 우는 소리를 듣고) 광수야 너는 까치 새끼
를 또 잡아왔구나.
광수 ...아버지 나 이 까치 새끼를 날려 보내겠어요²⁹⁾

아버지는 광수에게 학교 선생님께서 동물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음을 반복해서 묻는다. 새장 안에 갇혀 있는 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하는 측은과 만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사람다움과 심성의 착함으로 선의 기본 덕목이다. 아버지의 이러한 가르침은 주제 면에서 양면성을 드러내는데,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적인 덕목을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학교에서 배운 덕목임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학교 규율을 통해 ‘착한 어린이’를 형성하고자 하는 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도덕적 덕목과 상관없이 학교 규율의 강조로 이어진다.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학교의 규율을 어기지 않고 따라야 한다는 아버지의 훈계는 당대 교육의 목표를 그대로 담아낸 것이겠다. 이것은 생명 존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전체에서 드러나는 어머니에 대한 예절, 동생과의 우애, 친구들의 우정 등과 연결되어 ‘착한 어린이’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기도 하다.

29) 김진수, <종달새>, 『동아일보』, 1938.6.29.

동물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랑의 대상이 동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이 형제에게 미치면 우애가 되고 부모에게 미치면 효가 되고 타인에게 미치면 인이 된다. 이를 사회로 확장하여 나라에 미치면 충이 되고 천황송배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당대 수신교과서와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지는데, 김진수가 <종달새>를 발표한 1938년은 보통학교 수신서 제4기(1938-1941년)로서 내선일체를 비롯한 동화정책과 총량한 황민화 교육 강화를 추구한 시기이다.³⁰⁾ 이때 발행된 수신교과서의 교과 목표에 해당하는 덕목과 <종달새>에서 드러난 덕목을 비교하면, 1학년의 은혜, 우애, 우정, 예절, 2학년의 동물 사랑, 은혜, 효, 예절, 3학년의 선생님에 대한 공경, 효, 우애, 예의, 은혜, 4학년의 가족애, 자연의 은혜 등과 이어져 있다. 모든 학년의 마지막 덕목은 이 덕목을 수렴하는데, 1학년 교과서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착한 어린이가 2학년에서는 천황의 은혜에 감사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착한 어린이, 3학년에서는 천황을 위해 몸 바치는 좋은 일본인, 4학년에서는 천황을 위해 몸 바치는 좋은 일본인으로 변환된다. 5-6학년 때는 보편적인 도덕 덕목보다는 충효와 보은에 관련된 덕목들이 강조되고 6학년에서는 ‘국민정신 작흥에 관한 조서가 다루어진다.’³¹⁾ 6학년 수신교과서가 초등학교 교육의 마무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신교과서의 주요 덕목은 식민지 조선 아동을 황국신민으로 호명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아동이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학년에서 6학년 수신교과서의 궁극적 목적은 황실에 ‘충군애국 하는 황국신민’ 육성 추구에 있었던 것이다.

광수는 아버지의 말씀, 즉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복수에 게 사과하고 깊이 반성한다. 동물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며,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을 존경하겠다는 광수의 다짐은 결국

30) 김순전 외, 『조선총독부 초등학교 수신서(제Ⅳ기)』, 제이앤씨, 2007, 19면.

31) 서강식, 「조선총독부 발간 제Ⅳ기 수신교과서 분석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38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3 참조.

수신교과서 덕목의 내면화 과정으로 이어져 아동은 식민지 통치에 적합한 도덕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일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 규율을 충실히 수행하는 ‘착한 어린이’는 ‘좋은 일본인을 거쳐 ‘황국신민’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해 수신교과서에 언급된 덕목을 실천하는 ‘착한 어린이’라는 표시가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훈계는 단순한 도덕적 덕목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이며 “선생님에 대한 절대적 관계를 통해 국가관에 합당한 연대 의식”³²⁾을 강조하는 식민지 교육의 논리를 재생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착한 어린이’를 매개로 한 작품들이 1930년대 중후반 아동문학의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1930년대 중후반 아동극에서 강조하는 친절, 희생, 정직, 우정, 우애, 타인에 대한 사랑³³⁾ 등 인격을 갖추는 일은 근대사회의 근대적 주체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이 덕목들은 일제가 식민지 조선 아동을 교육하고자 발행한 수신서의 주요 항목들과 일치하며, 이는 곧 “천황과 국가에 봉사하는 충량한 신민이 될 수 있는 도덕성을 철저히 내면화시키기 위한 항목”³⁴⁾이기도 했다.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아동문학에서 이런 도덕교육이 강조되었던 것은 식민지 조선 아동의 황국신민화라는 일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전시체제의 식민지 조선에서 일제는 “공존공영”을 위한 실천 방법으로 “윤리 도덕심의 함양”³⁵⁾을 식민지 조선 아동에게 요구하였기 때문

32) 이병담, 『한국 근대 아동의 탄생』, 제이앤씨, 2007, 131면.

33) 1936년 2월부터 1937년 5·6월까지 발행된 아동잡지 『동화』에 발표된 아동극 8편의 주제 역시 정직, 감사, 친절, 배려, 근면, 신의 등 수신교과서의 덕목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서는 손증상, 『『동화』를 통해 살펴본 1930년대 중반 아동극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국어국문학』 179호, 국어국문학회, 2017) 참조.

34) 이병담, 앞의 책, 124면.

35) 일제는 1934년 자신들의 교화사업 추진을 위한 이용단체로 경성교화단체연합회를 설립하였고, 이 단체에서는 일제가 의도하는 제도와 양식, 정신생활을 이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지도강령으로는 국체를 천명하여 국민정신의 작용에 노력하고, 사회 연대의 의식을 명백히 하고, 관공리, 교원 등 사회 교화에 종사하는 자는 사명을 다하고

이다. 다시 말해, 이런 도덕적 덕목들의 지향점이 개인의 자각과 자유성 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며, 결국에는 ‘착한 어린이는 가정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국가로 편입되어 식민지 지배 담론에 순응하고 실천하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한편, 광수의 하모니카 반주에 맞추어 복수가 노래를 부르는 마지막 장면은 아동의 놀이까지 파고든 식민권력의 작동을 드러내는 또 다른 지표이다. 남매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단지 아동극 공연을 위함이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을 무대화하는 작업인데, 그때 화해한 남매가 부르는 동요는 바로 일본의 민요, 동요 시인인 노구치 우조(野口雨情)의 「푸른 눈의 인형」(靑い眼の人形)을 번안한 것이다.

푸른 눈을 한 인형은 / 미국 태생의 세룰로이트
일본의 항구에 들어왔을 때 / 많은 눈물을 보였다
「나는 여기 말을 모르니 / 길을 잃은 아이는 어떻게 해,
상냥한 일본의 어린 아이들아 / 사이좋게 놀아다오³⁶⁾

새파란 눈을 가진 고운인형은 / 미국에서 자라난 세룰로이드
우리나라 항구에 나렸을때에 / 외로운 눈물이 핑돌았구나
어전나는 여기말을 아지못하니 / 길을일코 못찾으면 어이하리오
정다운 우리의어린 동모들이여 / 사랑하며 친절하게 놀아주세요
사랑하며 친절하게 놀아주세요³⁷⁾

일만 친선의 정신을 고취하여 공존공영의 실을 거함으로써 세계평화의 기조로 하는 지도 강령 7가지와 존황애국 정신승조의 사상을 철저히 하고, 국기존중의 정신을 함양하고, 공공적 운동에 협력하고 윤리 도덕심의 함양, 인습에 의한 차별관념 타파, 의퇴심을 타파하여 근로존중의 정신을 고조하고, 국제적 행동의 훈련 등 실천 요령 14가지가 있다. 『매일신보』, 1934.1.25.

36) 野口雨情, 「靑い眼の人形」, 『日本童謡全集』 6, 日本蓄音器商会, 1937.

37) 김진수, 〈중달새〉, 『동아일보』, 1938.6.29.

일본에서 “넓게 사랑 받았던 동요 중 하나”³⁸⁾인 「푸른 눈의 인형」은 노구치 우조의 동요에 나가요 모토리(本居長世)가 곡을 붙여 1921년 12월호 『킨노후네(金の船)』에 「푸른 눈의 인형(靑い目の人形)」으로 발표되었다가 1924년 6월에 동요집 『푸른 눈의 인형(靑い眼の人形)』으로 출판되었다. 나가요 모토리의 노래에서는 ‘사이 좋게 놀아다오라는 구절이 2번이었으나 동요집에서는 1번으로 바뀌었다. 킨노후네사(金の船社)에서는 초판 발행 3달만에 『푸른 눈의 인형』이 재판에 들어갈 정도로 동요집은 인기를 끌었다. 게다가 1922년에는 나가요 모토리가 피아노 반주를 하고 그의 딸 미도리가 노래를 부른 레코드도 제작되었다. 이 동요가 당시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진수는 일본에서 이 동요를 접했을 것이고 마지막 장면에 이 노래를 삽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흥미로운 점은 1959년도의 희곡집에 실린 <종달새>에서는 일본 동요를 삭제하였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텍스트와 희곡집의 텍스트는 몇 단어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해방 후라는 시기 상 일본 동요를 김진수가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역으로 김진수가 1938년 <종달새>를 발표할 당시에 「푸른 눈의 인형」이 일본 동요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마지막 장면에서 남매가 부르도록 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노구치 우조는 『푸른 눈의 인형』의 출판에 즈음에」를 통해 동요의 본질로 동심성(童心性)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동심성이 결여된 예술은 지식의 예술이고, 동요의 본질은 지식의 예술이 아닌 아동과 악수하는 데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는 아동의 생활이 가장 자유로운 자연이며 동요는 아동의 생활과 일치하므로 동요는 동심성을 갖는 자연이라고 언급한다.³⁹⁾ 노구치 우조는 당시에 ‘푸른 눈’이나 ‘빨간 머리’와 같은 이

38) 나가요 모리(本居長世)에 의하면 “대진재 이후 미국 국민의 우리를 향한 동정에 보답하기 위하여 예술 답례 사절”로 미국에 다녀왔을 때에도 그 지역에서 백인들이 가장 기뻐한 곡이었다고 한다. 本居長世, 「靑い眼の人形の思ひ出」, 『日本童謡全集』 6, 日本蓄音器商会, 1937.

39) 野口雨情, 「靑い眼の人形の出版に際して」, 『金の船』, 1924.9.

국의 인형을 소재로 한 동요가 없어서 이 동요를 만들었으며, 「푸른 눈의 인형」은 이국의 인형이 다정한 일본 아이들에 의해 “동정 받는 국제적 애정(國際愛)의 동요(童謠)로 고귀한 일본정신이 드러난”⁴⁰⁾다고 하였다. 즉, 노구치 우조에게 있어 동요는 아동의 생활과 일치하고, 그 생활로부터 비롯된 아동의 마음이 동요의 본질이며, 일본 동요로서 「푸른 눈의 인형」이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는 일본 아동의 마음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진수가 「푸른 눈의 인형」과 관련한 이런 배경과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진정한 일본 국민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의 혼, 일본이라는 나라의 땅이 뿔어내는 냄새에 바탕을 둔 향토 동요의 힘”⁴¹⁾을 강조한 노구치 우조의 동요는 김진수에게 있어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검열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이는 김진수가 일본 동요를 부르는 식민지 조선 아동의 모습을 통해 아동의 일상을 지배하는 식민권력의 모습을 포착하는 것이기도 했다.

3. 극중극의 꿈을 통한 지배담론의 균열 시도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김진수의 <종달새>가 황국신민으로서 식민지 조선 아동이 지녀야 하는 윤리 도덕심과 일본적 정조를 담아낸 작품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당대 수신교과서가 수행한 황국신민화 육성 기획과 더불어 아동극이 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실천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제 말기에 『소년』, 『아이생활』, 『반도노광(半島の光)』 등에 발표된 친일 성향의 작품들이 충후미담과 전쟁놀이, 전쟁의 일상화를 직접 그리고 있는 것⁴²⁾과 비교한다면, 아동극 <종달새>는 보편적인 친일 작품들과는 그 성

40) 野口雨情, 「『青い眼の人形』の歌詞について」, 『日本童謡全集6』, 日本蓄音器商会, 1937.

41) 마쓰오카 세이고, 이연숙 옮김, 『만들어진 나라 일본』, 프록네시스, 2010, 413-414면.

42) 김화선, 「이원수 문학의 양가성-『半島の光』에 수록된 친일 작품을 중심으로」, 『친일문

향을 달리하는 면이 있다. 게다가 소년문예운동에 가담하지 않았던 김진수가 자신의 희곡 경향과도 상당히 다른 아동극을 갑작스럽게 창작한 이유도 쉽게 해명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종달새>의 내용과 주제 외적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길>에서 식민지 사회 현실의 구조적 문제를 문제 삼았던 김진수가 <종달새>에서 지배담론의 균열을 시도한, 혹은 그 가능성의 지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진수의 의도를 보다 선명히 읽어내기 위해 <종달새>의 극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경: 복수는 자고 있고 어머니는 복수의 친구 옥희와 함께 광수를 찾아 집을 나선다.
- 2경: 복수의 꿈속에서 광수에게 잡혀온 종달새 가족들이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3경: 꿈에서 깬 복수가 새들을 날려 보내자 광수는 화가 나서 동생을 때리고, 아버지의 중재로 남매는 화해를 한다.

<종달새>의 공간적 배경은 광수의 집 마루(1경) - 종달새가 갇혀 있는 새장(2경) - 광수의 집 마루(3경)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극 작가들은 아동의 공연 능력과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주제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단막극을 선호한다. 반면 김진수의 <종달새>는 당대 아동극치고는 상당히 긴 3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1경과 3경은 복수와 광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아동의 일상을 담고 있는 현실 세계이고, 2경은 새장에 갇혀 있는 종달새 가족들의 삶이 복수의 꿈으로 드러나는 허구의 세계이다. 그런데 이 꿈은 복수의 꿈으로, 복수는 2경을 바라보는 허구적 관객이 되고

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김화선, 「대동아공영권의 전쟁동원론과 병사의 탄생」, 『인문학연구』 31권 2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박영기, 「일제 말기 아동 문학교육 연구」, 『동화와 번역』 15집, 건국대학교 동화화변역연구소, 2008.

관객의 층위가 복수와 실제 <종달새>를 관람하는 관객으로 이분화됨으로써 극중극 구조를 갖게 된다. 아동의 일상이라는 현실 세계를 토대로 하는 전체극 안에 종달새의 삶을 다룬 허구적 세계가 삽입된 것이다. 아동의 생활이 “물활론(hylozoism animism)적이며, 마술적(magic) 세계”로 되어 있어 아동문학에서 소재는 “비인간⁴³⁾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종달새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복수의 꿈속 세계는 아동관객의 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광수에 의해 좁은 새장 안에 간헐적 자유를 갈망하는 종달새의 삶을 살펴보면 <종달새>에서 극중극은 단지 재미를 위해 삽입된 볼거리로서가 아니라 극의 의미를 생산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종달새의 이야기를 들은 복수가 종달새를 풀어주고, 광수가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극중극이 전체극을 변화시키고 허구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종달새의 이야기가 복수의 각성 계기이면서, 동시에 광수에 의해 자유를 빼앗긴 종달새의 슬픔이 일본에 의해 자유를 빼앗긴 식민지 조선의 슬픔을 상기시킨다는 점이다. 김진수가 황국신민으로서 지녀야 할 생명 존중, 예절, 우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어린이라는 수신서 덕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자 했다면, 종달새 가족의 슬픔을 삽입하는 방식은 그다지 유효하지는 않다. 극연 1회 희곡상을 받은 김진수의 극작 능력과 종달새의 슬픔이 조선의 슬픔을 환기시키고 있음을 전제한다면, <종달새>의 2경에서 형상화된 사건들의 의미는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종달새>의 2경은 일제의 식민 담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주제와 다른 지점을 지향하기 때문에 일제의 요구에 거리를 두고자 하는 김진수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3)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서문당, 2003, 12-14면.

극중극으로 삽입되는 복수의 꿈은 새들이 노래하고 대화하는 공상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전체극 무대의 일부분인 새장 안에서만 진행되어 전체극과는 공간적으로 구분되는 독자적 무대를 갖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두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임을 드러낸다. 그런데 <종달새>에서 복수의 꿈은 그 자체가 완벽한 하나의 연극이면서 광수가 종달새를 잡은 결과이자 복수가 종달새를 풀어주게 되는 계기로, 극중극은 전체극의 결과이자 원인이라 하겠다. 극중극이 단순한 볼거리나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극행동이 이루어지는 짧은 스펙터클 형식”으로 “연극적 허구에 참여하는 극행동의 전개에 직접 영향을 미”⁴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관객들은 극중 현실과 구분되는 극중극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자유를 갈망하는 종달새의 상황에 자연스럽게 몰입하여 실제와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특히 <종달새> 2경은 이 작품의 모티프라 할 수 있는 동요 「종달새」로 시작한다. 김진수는 극의 앞과 뒤에 이 동요를 배치하여 관객들이 2경을 극중극으로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노래를 통해 종달새의 슬픔을 증폭시킨다. 아동극에서 노래는 아동의 유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극의 정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1경은 복수가 낮잠을 잘 때 멀리서 들려오는 「자장가」⁴⁵⁾로 시작하고, 2경은 시작과 끝이 「종달새」이고, 3경에서는 「푸른 눈의 인형」으로 마무리 된다. 「자장가」의 선율은 알 수 없지만, 아기를 잠재우기 위해 부르는 노래의 특성상, 자장가는 기본적으로 잔잔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노구치 우조의 「푸른 눈의 인형」도 일본 동요이기는 하지만 가사는 미국에서 온 인형이 일본 항구에 도착해서 느끼는 낯섦과 외로움을 다루며, “처음부터 어떤 숙명을 짊어지

44) 신현숙, 『희곡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1990, 275-276면.

45) 어머니 가삼은 잠드는가삼/ 얼골만 묻으면 잠이 오지요
 어머니 가삼은 비단솜가삼/ 고단해 누우면 포근하지요
 어머니 가삼은 꿈나는가삼/ 머리만 대면요 꿈이 오지요
 김진수, <종달새>, 『동아일보』, 1938.6.22.

고 있는⁴⁶⁾ 듯한 무게감이 강한 노래로 선율 역시 어둡고 슬픈 느낌을 자아낸다. 즉 「자장가」와 「푸른 눈의 인형」은 경쾌하고 즐거운 노래라기보다는 잔잔하고 슬픈 노래에 해당한다. 이러한 슬픔의 정서는 광수에 의해 자유를 빼앗겨 새장에 갇혀 있는 종달새들의 이야기가 담긴 2경에서 극대화되는 것이다.

보리밭에 종달새 봄이 왔다고 / 은방울 흔들면서 노래하기를
누구던지 같이와 놀고가라고 / 첨아끝 조롱속에 옛집그린새
보리밭을 보면서 슬피울기를 / 갈래야 갈수없는 맨몸이라구⁴⁷⁾



< 그림 1 > 동요 「종달새」 악보

46) 마쓰오카 세이코(이연숙 옮김, 앞의 책, 410-413면)에 따르면 노구치 우조의 동요는 「비 내리는 달님(雨降りお月さん)」, 「이 마을 저 마을(あの町この町)」, 「비눗방울(しよぼん玉)」 등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무언가를 상실한 아이들을 그린 노래가 많다.

47) 김진수, 〈종달새〉, 『동아일보』, 1938.6.23.

2경에 삽입된 동요(<그림1>⁴⁸)는 윤복진의 「종달새」⁴⁹로 1925년 11월호 『어린이』의 「당선된 동요작문」에 발표되었고, 1926년 4월에 박대준이 작곡을 했다. 박대준이 윤복진의 동요 제목을 딴 작곡집 『중중 때때중』(1929), 『양양 범버궁』(1931) 등과 윤복진의 동요로만 묶은 『물새 발자국』(1939)을 출판할 정도로 윤복진의 동요는 당대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며 많이 불려졌다.⁵⁰ 윤복진의 동요는 “전래 동요의 전통성에 보다 밀착하여 어린이들의 삶에 근거한 현장성과 동시대적인 정체성”⁵¹을 추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달새」 역시 조선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종달새의 이야기를 3·4조 운율에 맞추어 노래한 곡으로, 보리밭에 봄이 왔지만 조롱 속에 갇혀 옛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리워만 하는 종달새의 슬픔을 다루고 있다. 동요의 내용은 <종달새>에 등장하는 종달새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는 김진수가 전통적 정조가 담긴 동요 「종달새」를 적극 활용하여 극화하였거나 아이들에 의해 새장에 갇혀 있는 종달새 가족의 아픔과 슬픔을 강조하기 위해 동요 「종달새」를 삽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자연의 일부로 새는 동요·동시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자유롭게 날아서 어디든 갈 수 있기에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새장에 갇혀 날지 못하는 새는 연민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김진수는 옛집을 그리워하며 날아가고 싶은 종달새를 통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조선을 그리워하는 자신, 더 나아가 조선인들의 삶을 투영하고자 했을지도 모른다. 종달새의 삶에 대한 관객의 연민

48) 강신명, 『아동가요곡선삼백곡』, 농민생활사, 1936, 55면.

49) 손태룡, 「윤복진의 가사로 된 악곡 고찰」, 『음악문화학』 5호, 한국음악문화학회, 2014, 133면.

50) 경성방송국이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면서 윤복진의 동요는 동요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히 전파되었고 많은 아이들의 그의 노래를 따라 불렀다. 원종찬, 「동요시인 윤복진 연구-북한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17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9 참조.

51) 윤복진의 동요는 언어의 유희성과 구술성, 웃음의 해학성이라는 전래 동요의 전통을 기반으로 한다. 이항근, 「윤복진 동요시에 나타난 전래 동요적 전통 계승 양상」, 『한국 아동문학연구』 20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1, 181면.

과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 인물형’으로서 종달새의 모습을 주조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더욱 강화된 검열을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김진수는 조선을 상기하는 민감한 표현들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표현들을 종달새 가족들의 대화를 통해 드러내며 관객들의 자발적인 감정 이입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종달새>의 2경은 표면적으로는 3경에서 일어난 남매의 다툼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극의 내용 전개와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검열 통과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종달새 가족의 사연은 광수 때문에 잡혀 새장에 갇히게 된 과정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주를 이루면서 종달새 가족은 광수의 이기심에 의한 피해자로서 그려지고 관객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다.

- 다섯째** 나도 그날 아침에는 그 작난꾸러미 아이들이 우리를 잡아다가 이 새장에다 너흘 때에는 나는 자꼬만 눈물이 나와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 둘째** 어머니 저어— 아버지는 지금 어디 가있을까요?
- 첫째** 우리가 잡혀오던 날 아버지는 어찌나 분하고 원통하던지 막 죽을려구 발광을 하면서 어디로 가버리구 말었지.
- 다섯째** 아버지는 어대가 잇을가……? 우리들이 무척 보고 싶겠지…… 나는 아버지가 자꼬만 보고 싶어
- 어머니** 아버지 얘기는 그만들 해라……. 나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 넷째** 어머니 글세 우리는 왜 이런 데로 잡혀오고야 말았어요?
- 첫째** 이 집 작난꾸러미 광수라는 애가 우리를 잡아왔지 뭐……⁵²⁾

www.kci.go.kr

어미 종달새는 좁은 새장 안에서 먹이로 싸우고 있는 아기 종달새들의 싸움을 말리고 있다. 아기 종달새들의 싸움은 먹이의 부족, 즉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종달새들은 잡혀오던 날을 떠올린다. 그날은 해가 쨍쨍하고 아버지가 맛있는 메뚜기를 한 마리 물어다 주셨다. 새장 안의 답답함과 먹이 때문에 싸우는 종달새들의 모습은 그날에 대한 이런 기억과 대비되면서 종달새의 슬픔을 강화한다. 아이들이 그들을 잡을 때 아버지는 가족을 잃은 충격과 원통함에 죽으려고 발광을 해보았지만, 그들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아버지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고 아기 종달새들은 아버지와 헤어져 새장 안에 갇히게 되었다. 이런 사연만으로도 종달새 가족은 피해자이고 관객은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데, 더 나아가 왜 이런 곳에 잡혀왔는지 묻는 넷째 종달새의 물음에 첫째 종달새가 “이 집 작난레이 광수라는 애가 우리를 잡아왔지”라고 답하는 부분은 종달새 가족의 슬픔과 억울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고 종달새를 피해자형 인물로 형상화한다. 종달새 가족이 억울하게 새장에 갇히게 된 사연이 장난꾸러기 아이들의 놀이에 의한 포획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경에서 옥순이가 종달새 소리가 듣기 좋아서 새를 새장에 둔다고 이야기하고 광수가 또 사냥을 나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이들의 행동은 잔인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추어지게 되며 피해자에 대한 동정은 더욱 커진다.

이어지는 어미 종달새의 후회와 한탄은 비극적 분위기를 집약시킨다. 부모 종달새들은 광수가 처놓은 울가미가 있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썼으나, 힘이 없는 어미 새만 아기 새들과 같이 광수에게 잡혀 버리고 말았다. 종달새 가족에 대한 동정심이 커질수록 아동 관객은 그들이 재미삼아 잡았던 동물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보다 유의미한 확장이 가능한 아동 관객들은 피해자로서의 종달새 모습에서 자신들의 삶, 즉 일본에 의해 자유를 빼앗긴 조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섯째** 그럼 어머니는 우리를 데리구 도망하지 안코 왜 암말두 못하구 이런 대로 짹혀왔어요?
- 어머니** 내가 잘못해서…… 너이들까지 이러케 고생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나는 원통해서 죽
- 셋째** 우리가 짹혀오겠다 되니까 아버지는 곧 도망해 버리구 말었지요?
- 어머니** 너의 아버지는 도망한 게 아니다. 내가 너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안했기 때문에 이러케 됐지 애초에 우리가 집 자리를 그런 곳에다 정한 것두. 너의 아버지는 좀 더 깊숙한 산골로 들어가자고 그랬었지. 그러는 것을 내가 옥여서. 앞으로는 맑은 강물이 흘러내려가고 좌우로는 현환 벌판에 경치 조흔 것만 생각하고. 그런 곳에 다 집을 짓기 시작하였지
- 둘째** 아니야 어머니가 잘못된 게 아니야 나쁜 건 우리를 잡아온 애들이 나쁘지 뭐⁵³⁾

아버지에 대한 아이들의 그리움이 원망으로 바뀌자 어미는 좀 더 깊숙한 산골에 집을 짓지 않고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짓자고 우긴 자신을 닮았다. 종달새 가족 모두 피해자임에도 어미 종달새는 조금만 더 깊숙한 숲에 집을 지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자책했다. 슬픔과 분노가 자책으로 변할 때, 둘째는 어미 탓이 아니라 자기들을 잡은 아이들의 잘못이며 아이들이 나쁘다고 말한다. 이는 종달새 가족이 새장에 갇혀 자유를 상실하게 된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그들을 포획한 아이들의 잘못임을 드러내며, 더 나아가 조선이 일본에 의해 주권을 빼앗기게 된 것은 조선이 열등해서 혹은 개화가 늦어서가 아닌 조선을 침략하고 지배한 일본의 죄임을 암시한다. 또한 앞서 논의한 것처럼 종달새의 이야기가 현실의 문제

www.kci.go.kr

53) 김진수, 〈종달새〉, 『동아일보』, 1938.6.23.

를 우회하기 위한 복수의 꿈, 즉 공상의 세계로 표현되었음을 전제한다면, “답답스런 조롱 속에”서 “언제까지나 이러케 살어요”라는 아기 종달새의 물음과 “오늘 같이 조흔날 이런 조롱 속에 갇쳐서..... 저 푸른 하늘 넓은 들판으로 맘껏 날아보았으면”⁵⁴⁾하는 소원은 김진수가 검열을 통과하면서 식민지 조선을 상기시킬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2경이 끝날 때 다시 「종달새」 노래가 나오고 3경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극은 자유를 갈망하는 종달새를 다룬 복수의 꿈의 잔영과 슬픔의 정서 속에서 전개된다. <종달새>의 3경은 선생님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황국신민으로서 함양해야 할 윤리 도덕심인 생명존중과 우애가 강조되었지만, 아동관객이 느끼는 슬픔의 정서는 종달새에 대한 측은지심을 넘어서서 식민지 조선 현실과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극의 표면적인 주제인 일제의 식민담론의 내면화는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4. 식민권력에 대한 협력과 저항의 경계에서 - 결론을 검하여

1935년 카프 해산 이후 성인문단이 큰 변화를 겪은 것처럼, 대부분의 소년회는 해산되었고 아동문학에 대한 검열의 강화 속에서 『어린이』, 『신소년』, 『별나라』 등이 폐간되었다. 일제는 1935년 10월 3일에 조선교회단체인 연합회의 발회식을 개최하면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교화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전국적으로 15,080개의 교화 단체와 1,124,506명의 단원들이 활동⁵⁵⁾하면서 일제의 교화 사업에 협력하게 되었다. 일제는 학무국 사회과 내에 교화계를 설치하고 식민지 사회사업시설을 효율적으로

54) 『김진수희곡선집』에서 이 대사는 “우리는 언제까지나 감옥살이를 해야 해요?”(306면)로 바뀌었다.

55) 『매일신보』, 1935.10.1.

관리하고자 ‘정신작흥주간(精神作興週間)’을 시행하였다. 이 행사기간에는 조선신궁과 경성신사에서 각 학교와 단체장 등이 참배를 하고 일장기 마크와 선전지를 배부하기도 하였다.⁵⁶⁾ 처음에는 ‘건강증진일’, ‘생활개선일’, ‘공덕함양일’, ‘보은감사일’ 등이 실시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황군감사일’, ‘절미실행일’, ‘자원애호일’ 등 군국주의 색채를 띤 사업이 추가되었다.

1936년 12월 23일에는 조선소년총연맹과 경기도 소년연맹, 경성소년연맹 등의 책임자들이 “가맹단체가 전체적으로 해산 내지 유아무야에 있으며 일체의 사무를 집행치 못하고 유령에 다름없는 존재”라며 각 단체의 해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과거운동보다 모든 것을 새롭게 새로운 기치 아래 충실히 하고자 운동관계자 개인 중심 조직으로 새단체를 조직”하겠다고 조선아동애호연맹 발기회를 개최하였다.⁵⁷⁾ 일제가 강조하는 새로운 기치란 “중견 청년의 양성과 동시에 제이의 국민 훈련”이었으며 이 목적을 수행하는 소년회와 문예단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하였다. “순일본 정신을 주입한 일본 건아단의 지도 방침”을 거울삼아 “소국민의 지도”를 구체화하였는데, 지도 방침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소년의 심리에 적합한 교육 체계를 정돈하고, 여가를 유용화하여 조선의 실정에 즉 학교 교육의 실제화를 근간”으로 하기로 하였다.⁵⁸⁾

1937년 10월 13일에 황국신민서사 봉독식이 행해진 이후⁵⁹⁾ 황국신민서사⁶⁰⁾는 식민지 조선의 일상으로 스며들었으며, 1938년 3월에는 3차 조선

56) “7일부터 13일까지 국민정신작흥주간으로 하여 경성부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거행될 터인데, 7일은 부민 전체가 참배하여 오전 9시에 조선신궁과 경성신사에서 국민정신작흥주간 실시 봉고제를 진행할 터인데 각 정과 각 학교 각 단체장 등이 참배할 터이며, 8일은 건강증진일로 조끼회 ‘라디오’ 제조 경성운동장 무료 공개 등이 있을 터이고, ...중략... 당일은 특히 경성부 사회과에서는 일장기 막으 15만개를 만들어 부내 각 국민학교 생도와 각 단체에 배부하여 가슴에 부치게 할 터이며, 선전지 13만매를 각 처에 배부할 터이라고 한다. 그리고 11일은 생활개선일, 12일은 공덕함양일, 13일은 보은감사일 등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매일신보』 1936.11.5.

57) 『매일신보』, 1936.12.27.

58) 『매일신보』, 1936.6.10.

59) 『동아일보』, 1937.10.8.

교육령이 개정되면서 황국신민화 교육은 더욱 강화되었다. 칙령 제107호로 개정 공포된 3차 조선교육령⁶¹⁾의 소학교 규정 제1조는 “아동 신체의 건전한 발달에 유의하여 국민도덕을 함양하여 국민생활 필수한 보통의 지능을 득케하여써 충량한 황국신민을 육성함에 노력”하는 것으로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를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아동 교양 방법의 유의해야 할 9가지 세부 사항에는 칙어의 취지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 내선일체와 근로호애의 정신의 함양, 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지식기능 연습, 아동 신체의 건전한 발달, 철저한 국어교육을 통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조건 함양 등이 있었다.⁶²⁾ 이와 같이 3차 조선교육령은 일제가 학교 교육을 통해 식민지 조선 아동을 천황의 신민으로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보다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식민지 조선 아동의 교육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아동문학은 이런 식민담론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이 시기 아동문학은 식민지 현실

60) ‘皇國臣民의 誓詞’는 아동용(其1)과 일반용(其2)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동아일보』, 1938.1.1.

其ノ一

一, 私共ハ大日本帝國ノ臣民デアリマス(우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二, 私共ハ心ヲ合セテ天皇陛下忠義ヲ盡シマス(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三, 私共ハ忍苦鍛鍊シテ立派ナ強イ國民トナリマス(우리들은 인고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其ノ二

一, 我等ハ皇國臣民ナリ忠誠以テ君國ニ報セン(우리는 황국신민이며 충성으로 군국에 보답한다.)

二, 我等皇國臣民ハ互ニ信愛協力シ以テ團結ヲ固クセン(우리 황국신민은 서로 믿고 사랑하고 협력하여 단결을 공고히 한다.)

三, 我等皇國臣民ハ忍苦鍛鍊力ヲ養ヒ以テ皇道ヲ宣揚セン(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의 힘을 길러서 황도를 선양한다.)

61)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한말의 실력양성운동과 사립학교를 정리한 1911년 1차 조선교육령, 초등에서 대학까지 학제의 체계화가 이루어진 1922년 2차 교육령,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본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1938년 3차 교육령과 1943년 4차 교육령으로 규정되었다.

62) 『동아일보』, 1938.3.17.

에서 비켜서서 황국신민으로서 아동의 자세를 다루거나 공상성에 기대는 양상이었다. 대표적으로 윤석중이 창간한 『소년』(1937-1940)은 황국신민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승⁶³⁾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발표된 아동극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아동극은 보편적인 도덕 덕목을 드러내는 아동의 일상을 소재로 삼아 검열을 통과하였고 식민권력에 타협하였다. 김상덕의 <공일날>(『동아일보』, 1937.10.31)과 한상진의 <돌 던진 사람>(『동아일보』, 1938.1.30)은 아이들의 일상을 통해 ‘좋은 어린이가 지녀야 할 덕목’을 강조한다. <공일날>은 숙제도 안하고 동생의 과자를 빼앗아 먹은 오빠가 “못된 아이”에서 “조흔 애”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고, <돌 던진 사람>은 놀다가 친구 집에 돌을 던져 장독을 깨 아이들에게 나쁜 사람이 아닌 “양심”이 있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3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고 황국신민의 서사를 철저히 교육하던 이 시기에는 “착한 어린이”와 “좋은 일본인” 육성을 위한 덕목⁶⁴⁾이 심화되면서 아동극에서도 ‘착한 어린이’가 지녀야 할 덕목이 강조되었고, ‘착한 어린이’는 ‘좋은 일본인’을 거쳐 ‘황국신민’으로 수렴되는 출발점이라는 데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동의 생활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서사 장르는 ‘생활동화’와 아동의 연령과 대상에 따른 ‘유년동화’, ‘소녀소설’, ‘소년소설’ 등으로 분화되었으며, 1930년대 초반에 비판받았던 아동문학의 공상성이 다시 아동문학의 핵심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공상성이 사실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⁶⁵⁾ 이와 같은

63) 정혜영, 「제국과 식민지, 그 사이의 ‘소년’: 잡지 『소년』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7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 496면.

64) 이병담, 앞의 책, 144-148면.

65) 오현숙(「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 장르 분화 : 동화와 아동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71-176면)은 소년소설이 제도로 확립된 이후 유년동화가 발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상성이 “주로 유년동화의 ‘새로운 서사 규범’의 하나로 자리”잡아 나갔다고 보았다. 이 글 역시 공상성이 사실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의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아동극의 경우에 소년극과 유년극의 분화가

관점은 송남현이 예술로서의 동화를 창작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 글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는 아동문학이 “공상성을 떠다하여도 시대성은 가”져야 하고 “공상이 아모리 자연스럽다고 하지만은 현실에 입각”⁶⁶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송남현에게 있어 공상성은 아동의 유희나 동심의 문제가 아닌 예술로서의 아동문학이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있었으며, 공상성은 여전히 시대와 현실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종달새>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좁은 새장에 갇혀 있는 종달새를 다룬 2경은 현실에 기반한 꿈의 세계라는 점에서 1930년대 후반 아동문학 담론에서 강조되었던 공상성과 궤를 같이 한다. 다시 말해 1930년대 후반 아동문학에서 공상성은 현실의 문제를 우회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작가들은 이를 통해 황국신민으로서의 아동이 아닌 식민지 조선 아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발표된 <종달새>는 「자장가」, 흥난파의 「골목대장」, 윤복진의 「종달새」 등의 조선 동요를 통해 공연성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정조의 단초들을 마련하였으며, 아동극에서 접하기 힘든 극중극 형식을 통해 식민담론 수행에 균열을 일으켰다. 식민지 조선의 아동을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아동문학에 대한 검열과 지배가 강화되던 상황 속에서, <종달새>에서 종달새의 슬픔과 비극을 다룬 복수의 꿈은 곧 일본의 침탈로 국권을 상실한 조선 민족을 표상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이때 종달새의 삶이 식민지 조선인의 삶을 구성할 수 있었던 핵심적 요소는 다름 아닌 조선인들의 감정이었다. 아동관객은 자유를 갈망하는 종달새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을 매개로 동질감을 형성하게 되며 식민지 조선인의 삶을 상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아동관객들이 종달새의 삶에 몰입하는 순간, 생명존중, 우애, 선생님에 대한 복종 등이 강조되는 3경의 주제와 그 효과는 반감된다. 특히 이런 감성적인 부분은 조선 관객들 사이의 교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66) 송남현, 「예술동화의 본질과 그 정신: 동화작가에의 제언」, 『동아일보』, 1939.12.5.

감을 전제하고 “검열관의 시선이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영역”⁶⁷⁾이라는 점에서 더욱 유용하였으며, 2경은 복수가 종달새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극 구조에서는 문제가 될 여지도 없었다. <종달새>는 1930년대 후반 식민담론을 수행하면서도 그 틈새를 통해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 준 작품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김진수는 한국 아동극사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해방 후 교직에 있으면서 연극의 교육적인 측면과 사회 교화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는⁶⁸⁾ 점을 고려하면 그의 아동극 창작은 김진수 나름 당대 아동극에 대한 문제의식과 자신의 지향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진수는 “아동으로 하여금 앞날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반이 될 만한 준비는 유희를 통하여 채득”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아동극은 “유희정신의 가장 이상적인 것을 가장 고상한 것을 가장 발달된 것”⁶⁹⁾이라며 아동극에서 유희 정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유희는 아동의 일상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정신적 요소의 하나이다. 유희 정신은 무엇보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즉, 김진수에게 있어 유희 정신으로부터 비롯된 감정의 공감은 아동의 교육 수단으로서 아동극이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종달새>에서 황국신민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이 강조되기는 하였지

67) 김재석(「함세덕 역사소제극의 창작 전략과 그 의미」, 『어문학』 108집, 한국어문화회, 2010, 402면)은 국민연극 시기에 함세덕이 발표한 역사소제극 <낙화담>과 <어밀레종>이 표면에는 일제의 지배담론을 드러내고, 이면에는 식민지 조선의 저항담론을 숨겨두는 ‘모순의 창작 전략’을 통해 검열을 통과하였다고 했다.

68) 김진수는 해방 이후 「대학연극의 방향」, 「학생과연극」(김진수, 『연극희곡선집』, 1968, 선명문화사) 등의 글을 발표하면서 꾸준히 학생극에 관심을 가졌다.

69) 김진수는 이러한 아동극은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시설과 재료의 부족으로 학교극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전쟁을 치른 후 여러 가지 사회적 악조건 속에서 아동에게 양질의 유희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무대를 돌려주는 것이 그 방안이라고 하였다. 김진수, 「아동극소고」, 『조선일보』, 1954.8.9.

만, 이 덕목들은 아동이 살아가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교육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했다. 김진수는 2경에서 동요 「종달새」와 동정심을 활용한 모순의 창작 전략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슬픔을 환기함으로써, 표면적인 주제에 균열을 만들었으며 황국신민화 교육에 보편 윤리가 침식당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는 유희로부터 비롯된 아동관객의 감정적 반응과 공감을 통해 식민권력에 대한 경계와 저항 사이에서 아동극의 공연 가능한 입계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도 1941년 태평양전쟁을 계기로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전시체제가 되면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되었고 『소년』, 『소년조선일보』 등도 폐간되었다. 모든 정기간행물은 협력과 저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고, 아동문학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아이생활』, 『半島の光』 등에만 발표될 수 있었다. 전쟁에 지원하여 나가는 오빠의 용감함을 칭송하는 <옵바가 출정하신 뒤(大東亞宣戰 第二年을 祝하며)> (『아이생활』, 1943.3)와 같은 아동극이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동시와 동화, 소년소설 등에서 인고단련, 멸사봉공, 애국반장 등 충후보국과 연계된 작품이 활발하게 발표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친일 아동극은 많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희곡작가들이 국민연극에 동원되었고 아동의 경우에는 문학을 활용하기보는 학교 교육을 통한 식민담론의 실천 대상이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소년운동의 구심점으로서 식민권력의 저항에 앞장섰던 아동극의 특수한 현상일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진수, <종달새> (전6회), 『동아일보』, 1938.6.22-24, 27-29.
_____, 『김진수희곡선집』, 성문각, 1959.
_____, 『연극희곡선집』, 선명문화사, 1968.
日本蓄音器商会 編, 『日本童謡全集』 6, 日本蓄音器商会, 1937.
野口雨情, 『青い眼の人形』, 金の船社, 1924.
『동화』, 『소년』, 『아이생활』, 『金の船』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2. 단행본

- 강신명, 『아동가요곡선삼백곡』, 농민생활사, 1936.
김경자 외, 『한국 근대 초등교육의 좌절』, 교육과학사, 2005.
김순전 외, 『조선총독부 초등학교 수신서(제Ⅳ기)』, 제이앤씨, 2007.
신현숙, 『희곡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1990.
이병담, 『한국 근대 아동의 탄생』, 제이앤씨, 2007.
_____, 『근대 일본 아동의 탄생』, 제이앤씨, 2007.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서문당, 2003.
최명표, 『한국근대소년운동사』, 선인, 2011.
마쓰오카 세이고, 이연숙 옮김, 『만들어진 나라 일본』, 프로네시스, 2010.

3. 논문

- 김재석, 「함세덕 역사소재극의 창작 전략과 그 의미」, 『어문학』 108집, 한국어문학회, 2010.
김희선, 「대동아공영권의 전쟁동원론과 병사의 탄생」, 『인문학연구』 31권 2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박영기, 「일제 말기 아동문학교육 연구」, 『동화와 번역』 15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8.
서강식, 「조선총독부 발간 제Ⅳ기 수신교과서 분석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38

- 호, 한국도덕윤리교육학회, 2013.
- 손증상, 『동화』를 통해 살펴본 1930년대 중반 아동극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179호, 국어국문학회, 2017.
- _____, 「1920-30년대 아동극 연구 : 『어린이』, 『신소년』, 『별나라』를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손태룡, 「윤복진의 가사로 된 악곡 고찰」, 『음악문헌학』 5호, 한국음악문헌학회, 2014.
- 심상교 「김진수 희곡연구 : 50년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35집, 안암어문학회, 1996.
- 오영미 「김진수 희곡 연구-1950년대 발표작을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6집, 한국연극학회, 1994.
- 오현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 장르 분화 : 동화와 아동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원종찬, 「동요시인 윤복진 연구-북한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17집,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9.
- _____, 「순수와 동심, 타락한 천사의 기원」, 『창비어린이』 14집, 창비어린이, 2016.
- 이덕기, 「영화 <수업료>와 조선영화의 좌표」, 『한국극예술연구』 29집, 한국극예술학회, 2009.
- 이향근, 「윤복진 동요시에 나타난 전래 동요적 전통 계승 양상」, 『한국아동문학연구』 20호, 한국아동문학학회, 2011.
- 정혜영, 「제국과 식민지, 그 사이의 ‘소년’ : 잡지 『소년』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7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

Abstract

The Position of Children's Play
in the Latter of the 1930's, the Crack and Colony
— Focused on Kim Jinsu's *Jongdalsae*

Son Jeungsang

This paper is aimed at examining the meaning of Kim Jinsu's *Jongdalsae* in the latter half of the 1930's of children's play. Sonyeon movement was depressed in line with the ceased publication of children's magazines such as 『*Eorini*』, 『*Shinsonyeon*』, and 『*Byeolnara*』 in 1935 and the disbandment of Sonyeonhoe. The situation of colonial Chosun changed rapidly due to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and the execution of the 3rd Chosun educational ordinance. Children's literature began to cultivate the minds of children by virtue of circulating loyal imperial subjects.

When the Japanese Empire emphasized the imperialism of colonial Chosun children, *Jongdalsae* was released. Passing the censorship means that the dominant discourse demand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s clearly visible on the surface of the work. Kim Jinsu tried to resist in accordance with the imperialistic policies by using the writing method of contradiction. In *Jongdalsae*, the writing method of contradiction has something to do with subject and children's song. He spoke love and affection for others emphasized in self-disciplinary training textbook inserted a children's song, *Aoi Meno Ningyou*(*the doll of blue eyes*) was made by Noguchi Uzzo. He gave the audience a feeling of sadness about lark's family by saying that when we can fly freely. Kim Jinsu intended to demonstrate the possibility of resistance while conducting Japanese colonial discourse.

Key Words : Children's Play, Children's Song, Japanese Imperialism, *Jongdalsae*,
Kim Jinsu, Noguchi Uzzo, Yun Bokjin

접 수 일: 2018년 10월 28일

심사기간: 2018년 11월 18일 - 12월 20일

게재결정: 2018년 12월 21일